



세계 청년들, 광주 글로벌청년캠프 참여

세계 청년들이 인공지능(AI) 선도도시이자 인권도시인 광주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시대적 변화 속 인간 중심의 가치와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사진)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광주 일원에서 ‘2025 광주글로벌청년캠프(UNESCO APCAD Youth Camp in Gwangju)’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국제교류센터와 유네스코가 공동 주관한 이번 캠프는 ‘AI 시대 속 포용의 가치(AI for All: Upholding the Value of Inclusion)’가 주제다.

캠프는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됨에 따라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AI시대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관심 있는 19~30세 국내외 청년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인도네시아, 네팔, 미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 총 13개국 19명의 청년들이 참가했다.

정상이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기후변화 대응 포럼 참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환경보건센터는 최근 제주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환경보건센터의 역할’ 공동포럼에 참여해 기후재해로 인한 건강 영향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7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전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 부산대학교 기후변화대응센터,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환경부, 권역환경보건센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기후변화대응센터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의 주요 역할과 추진 현황이 소개됐으며 지역별 폭염 및 온열질환 발생 현황과 대응 전략이 발표됐다. 전남도환경보건센터는 도내 기후재해 발생 추이와 건강 영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전남형 환경보건 정책 방향을 제시해 현장의 관심을 모았다.

노병하 기자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생맞춤지원 연수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관내 초·중학교 행정실장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연수’를 진행했다. (사진)

7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위기학생 통합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복합적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 구성원,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며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연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체계 구축의 이해와 소통의 시간’을 주제로 서울성수중학교 김영삼 교장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 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정책 방향, 경기도 사례 등을 소개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3기 위촉식 개최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4일 전일빌딩245에서 민관협치협의회 제3기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위촉식에는 강기정 시장, 명진 광주시의회 의원,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민관협치협의회는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정책을 발굴·실행하는 공식 협의체로, 2020년 7월 시민사회의 18년 요구 끝에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민관협치협의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광주시는 민선8기 시정 운영 주요 원칙 중 하나인 ‘협치’ 실현을 위해 민관협치협의회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제3기 민관협치협의회’는 민관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시민 의견이 정책에 녹아날 수 있도록 협치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정상이 기자



전남지방시대연구원, 교육 거버넌스 포럼

전남지방시대연구원 창립 1주년 기념 정책포럼이 지난 1일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동강홀에서 개최됐다. (사진)

지난 3일 동신대에 따르면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지역 맞춤형 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 운병태 나주시장,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 정순남 전남지방시대연구원장 등 전남지역 주요 인사와 시민단체, 교육 전문가,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전남 교육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았다.

김 도교육감은 ‘지방 소멸 대응 전남 교육혁신 방안 - 글로벌 전남 교육이 선도하는 K-교육’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며 전남 교육 대전환과 글로벌 전남 교육 전략을 소개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교육청, 신규 공무원에 임용장 수여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4일에 7월1일자 신규 임용된 지방공무원 42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사진)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임용장을 받은 신규 공무원은 교육행정 24명, 시설 10명, 조리 4명, 시설관리 1명, 운전 3명 등 총 42명이다. 이들은 올바른 사명감과 건전한 공직관 확립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했다. 도교육청은 임용장과 함께 공무원증 케이스 및 추천 도서를 전달하고, 즉석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수여식 후에는 신규 공무원들을 6개 조로 나눠 분청 각 과를 방문하는 ‘미리 ON 전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선배 공무원과의 소통 시간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적응을 돕는 계기를 마련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홍보대사 위촉

정지선·오세득·히밥 등 총 9인 남도미식 우수성 세계화 앞장

전라남도는 7일 정관스님, 정지선, 오세득, 임희원, 홍신애, 마츠다, 히밥, 안성훈, 강혜연 등 9명을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사진)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홍보대사 위촉을 축하하고, 남도 음식이 지닌 풍부한 미식 자산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홍보대사는 사찰 음식의 대가이자 요식업계의 아카데미 상으로 불리는 미국 요리상 ‘제임스 비어드상’을 수상한 정관스님, 꽃중년 미식이 마츠다, 대한민국 먹방 아이콘 히밥, 흑백요리사의 대표 셰프 오세득과 정지선, 한식 요리사 임희원, 요리 연구가 홍신애, 미스터롯 2 우승자 안성훈과 미스트롯 요정 강혜연이다.

이들은 향후 국내외 홍보 활동을 비롯해 박람회 주요 프로그램 참여,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며,

남도 미식의 우수성과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전남의 청정한 식재료와 정성이 깃든 남도 미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정부 승인을 받은 국내 최초 미식 테마 국제 행사로, 오는 10월1일부터 26일까지 목포 일원에서 펼쳐진다.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아세안 파빌리온 등 5대 글로벌 이벤트 △케이푸드(K-FOOD) 국제경연 ‘글로벌 은둔고수’ 등 4대 경연대회 △남도 주류페스타 등 3대 연계행사 △코트라와 재외 동포청 수출 상담회를 비롯한 5대 비즈니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대한민국 미식의 뿌리이자 정수로, 케이푸드 열풍을 이끌 이번 박람회는 남도 음식의 가치를 알리고 산업화·글로벌화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라며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식 전문가로서 흥미롭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남도 미식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변호사의 일상 그린 드라마 ‘서초동’ 4.6% 출발

변호사를 평범한 직장인의 관점에서 묘사한 드라마 ‘서초동’이 4%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사진)

지난 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tvN 새 토일 드라마 ‘서초동’의 첫 회 시청률은 4.6%(전국 기준)로 집계됐다.

1회에서는 9년 차 ‘어썸 변호사’ (법무법인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고용 변호사) 안주형(이종석 분)의 일하는 모습이 담겼다.

안주형은 여느 직장인처럼 한숨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을 파고들어 무죄 판결을 끌어내며 9년 차 변호사의 노련한 일솜씨를 보여줬다.

1년 차 변호사 강희지(문가영)도 서초동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법조타운 속 ‘어썸 변호사’ 밥 모임에 합류하며 구면인 듯한 안주형과 마주했다.

이외에도 강유석(조창원 역), 류혜영(배문정), 임성재(하상기) 등이 각각 개성 있고 인간미 넘치는 변호사로 나와 드라마에 생기를 더했다.

그간 변호사 등 법조인이 주인공인 드라마는 많았지만, ‘서초동’은 카리스마 넘치는 전문직의 모습보다는 월급 받는 직장인의 모습을 강조했다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들도 여느 직장인처럼 퇴근에 목마르고, 성과급에 기빠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직 변호사가 극본을 썼고, 잔잔한 성장물이라고 내세운 만큼 판타지는 빼고, 현실적이면서도 공감 가는 이야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석이 3년 만에 시청자를 만나는 작품이란 점에서도 관심이 모인다.

2010년 배우로 데뷔한 이래 영화와 드라마를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해 온 이종석은 2022년 드라마 ‘빅마우스’로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후 한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종석은 최근 제작발표회에서 “‘서초동’은 편하게 볼 수 있는 일상물”이라며 “그동안 해보지 않은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